

EDI형 항공화물 인도승낙업무 주요 내용

◆ 개요

1996년 7월 1일부터 선하증권 또는 항공운송장의 사본 통관에 따른 수입화물의 무단반출의 폐해가 급증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기 위해 지난 2월부터 김포세관관할 보세장치장과, 이어 4월부터는 서울·구로세관관할 보세장치장과 D/O 전산화 시범운영을 거쳐 5월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감.

이 시스템은 복합운송업체(항공화물대리점)가 화물인도승낙서(Delivery Order : D/O)를 해당 보세장치장으로 전송(EDI)하면 보세장치장에서는 이를 수신한 후 화물을 반출하는 체계임.

D/O 전산화를 실시하지 않는 경우 화주가 화물을 인도받기 위해서는 모든 서류 원본을 보세장치장에 제출하여야만 함(김포세관 관할).

◆ EDI형 화물인도승낙업무 절차

① 약정서 제출

- 대리점은 우리 협회로부터 'EDI형 수입화물인도승낙업무 약정서' 3부(3set)를 교부받아 이를 김포세관관할 보세장치장 간사사(한국항공), 서울 및 구로세관관할 보세장치장 간사사(삼덕창고, 삼원창고) 등에 제출하여 약정체결.

② 전산망 구축

- 적하목록(M/F) EDI를 위해 구축되어 있는 프로그램 외에 별도의 D/O EDI시스템 구축.

③ 화물인도승낙서 EDI 시행(대리점 보세구역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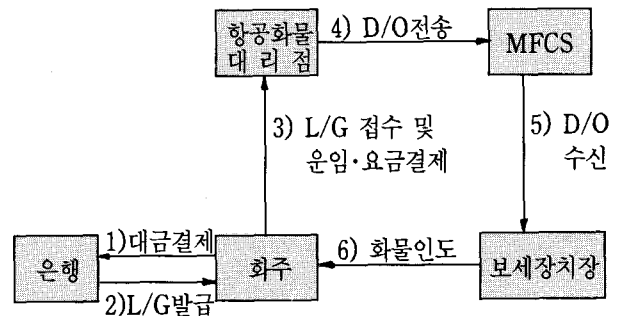
- 항공화물대리점은 보세구역(장치장)에 D/O 전자문서를 전송

- 화주의 의무사항 이행여부 확인후 EDI시스템에 D/O사항 입력
- KCIS 등을 조회하여 해당화물 반입장소의 전자문서 수신인(보세장치장 코드)을 파악한 후 해당 보세장치장으로 D/O 전자문서 전송.
- 화주, 관세사, 보세운송업체는 D/O발급 여부 조회 필요.
- 기 전송된 D/O의 취하는 보세운송신고 또는 수입신고 수리전까지만 허용됨.

※ D/O 발급 및 전송업무

- 1) 선불조건, 수하인이 실화주 : 즉시 전송
 - 2) 선불조건, 수하인이 은행 : L/G확인후 전송
 - 3) 후불조건, 수하인이 실화주 : 운임회수후 전송
 - 4) 후불조건, 수하인이 은행 : L/G확인 및 운임 회수후 전송
- 보세구역(장치장)의 화물반출업무
- 사전에 계약된 항공대리점의 D/O만 수신처리
 - 항공대리점의 D/O 전자문서를 수신한 경우에만 화물 반출 허용
 - 기 수신된 D/O의 취하는 보세운송신고 또는 수입신고 수리전까지만 접수

항공화물 인도승낙업무 도해



◆ EDI형 D/O업무 유의사항

- ① 비밀번호 관리 : 사용자 ID와 비밀번호가 유출되어 D/O가 발급되지 않도록 관리.
- ② 발급취하 : 보세운송신고 및 수입신고 수리전까지만 가능하므로 아직 화물이 반출되지 않은 경우 유선상으로 보세장치장에 요청·협조 의뢰.
- ③ 상시입력대행 이용 대리점 및 무등록업체 적용 : 참여 불가(거래화주는 서류원본에 의해서만 화물 반출 가능)
- ④ D/O발급 및 전송시점 : 통상문제가 없는 화물은 적하목록 전송시 함께 전송. 이외의 화물은 화주에 대한 점검후 D/O를 별도로 전송.